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9

JCCT 2022-9-2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기반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학교 체육과 성취기준 분석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이옥인*

Okin, Lee*

요약 본 연구는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 문장수 184개를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 지식 4개차원과 인지과정 6개차원 총 24개 조합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 분석과 달리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별 위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과 중학교 수업의 중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위 교육과정 중 공통교육과정의 경우 '기억하다'와 같은 인지과정 차원을 제외하고 비교적 다양하게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이 나타났다. 셋째, '메타인지 지식'과 '창안하다'와 같은 고등 지식 및 인지과정 차원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하위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60.7%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육과, 장애학생, Bloom, 신교육목표분류학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achievement criteria of the 2015 special curriculum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Bloom's new education goal taxonomy. To this end, 184 sentences based on the common curriculum and basic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relevant curriculum were analyzed into a total of 24 combinations of 4 dimensions of Bloom's new education goal taxonomy and 6 dimensions of cognitive cour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special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and middle school achievement standards, unlike the analysis of the basic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s shown in previous studies, the 'procedural knowledge-applying' combination was the most comm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hierarchy by school level. In addition, the dimensions of knowledge and cognitive processes were relatively diverse, confirming the key poi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middle school classes for disabled students. Second, in the case of the common curriculum among the lower curriculum, knowledge and cognitive process dimensions were relatively diverse except for cognitive process dimensions such as 'remember', and higher knowledge and cognitive process dimensions such as 'metacognitive knowledge' and 'creative'. Third, in the case of the basic curriculum among the lower curriculum, the 'procedural knowledge-applying' combination was excessively concentrated at 60.7%, which was analyzed to require improvements.

Key words : 2015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Disabilities, Bloom,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정희원,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202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8일

Received: June 13, 2022 / Revised: July 15, 2022

Accepted: August 18, 2022

*Corresponding Author: leeoug@jj.ac.kr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Jeonju Univ, Korea

I. 서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교육과정의 변천은 기존의 일반교육과정 개정과 분리되어 시차를 두고 연동, 추진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교육과정 개정과 동시 개발과 기본교육과정 및 공통교육과정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1].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 맞는 핵심역량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인 성취기준 형태로 표현되었다[2].

이 때 성취기준이란 각 과목별 교수·학습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3].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은 내용과 행동이 결합된 형식을 취하며, 교과와 그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자의 능력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어떤 지식의 유형이 강조되었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촉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4].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은 크게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적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마다 학습위계를 인지적 활동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였다[5]. 이 중 인지적 영역의 경우, 교육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다시 하위 요소들로 세분화한 나선형 구조의 단일차원 위계를 갖추었다. 이후 학습, 수업, 평가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사회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가 지나치게 평면적인 점이 지적되었으며[6],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는 지식 차원(4개 유형)과 인지과정 차원(6개 유목)으로 분류하는 2차원적 분류체계로 구분되었다[7]. 이러한 분류체계는 교육목표에 따른 교수, 학습, 평가의 일치도(일체화; alignment)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판단되어[8]. 오늘날까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수업지도에 대한 현장연구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특수교육 분야에서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로 성취기준을 분석한 연구는 체육과와 진로와 직업교과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국어과에서는 수업목표 분석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9][10][11].

특수교육 체육과 교육은 장애학생이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12]. 이는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공통교육과정 혹은 기본교육과정을 선택, 적용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기본교육과정 체육과의 경우 표준 교육과정의 대안 교육과정의 성격을 띄며,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역량이 추가되어 있다[13]. 앞서 언급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체육과에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구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업목표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10].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체육과의 성취기준을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loom(1956)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에 따른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과 교육과정 유형별 성취기준의 공통성과 차이점, 중점사항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수교육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목표를 작성하고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향후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loom의 신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중학교 체육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체 성취기준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Bloom의 신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중학교 체육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공통 및 기본교육과정별 성취기준 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호) 내 체육과 교육과정 공통(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 [별책 2]) 및 기본(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 [별책 3])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12][13]. 해당 중학교 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의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능력, 신체 표현 능력 교과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 교육과정의 차이점으로 공통교육과정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되 지체 및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정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등도 및 중도장애 학생의 인지 연령 수준과 생활연령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 체육 학습활동 요소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 대안 교육과정이라는 점과 이러한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역량에 안전생활 능력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통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구체적인 예로는 ‘[9체02-05] 장애 특성과 운동 능력 수준에 맞게 변형된 동작 도전 스포츠의 활동 방법을 익혀 실제 활동에 적용한다’와 같이 지체 및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정내용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12]. 또한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구체적인 예로는 ‘[9체육02-05]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물체를 멀리 던진다’와 같이 중도장애학생을 위한 기초 체육 학습활동이 반영된 사례를 들 수 있다[13].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인 중학교 체육과 공통 및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대상
 Table 1. Analysi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Number of Analysis
General Curriculum	70	156
Basic Curriculum	27	28
Total	97	184

표 1과 같이 특수교육교육과정에 나타난 공통 및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모두 97개였으며, 세 가지 분석 원칙에 따라 분석대상 문장 총 184개를 분석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방법

연구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Bloom(1956)의 신교육목표분류표(taxonomy table)의 2차원적 분류체계로 구성된 24개 조합(4개 지식 차원 × 6개 인지과정 차원; 표 1 참조)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다[6][7].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는 표 2와 같다. 즉, 성취기준의 내용요소는 Bloom의 지식

차원으로, 행동요소는 인지과정 차원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여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특징을 확인하였다.

표 2.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
 Table 2. Structure of the Bloom's Revised Taxonomy

Knowledge Dimensions	cognitive processes					
	1. Remembering	2. Understanding	3. Applying	4. Analyzing	5. Evaluating	6. Creating
A. Factual						
B. Conceptual						
C. Procedural						
D. Metacognitive						

표 2와 같이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은 지식 차원은 ‘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및 메타인지 지식’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2~3개 하위 유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지과정 차원은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및 창안하다’의 6단계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2~7개 하위 유형이 포함되었다.

지식 차원 중 사실적 지식의 하위 유형은 전문용어에 대한 지식(Aa),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대한 지식(Ab)이 해당되며, 개념적 지식은 분류와 유목에 대한 지식(Ba), 원리와 일반화에 대한 지식(Bb), 이론/모형/구조에 대한 지식(Bc)이 해당된다. 절차적 지식은 교과의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Ca), 교과의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Cb),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Cc)이 해당되며, 메타인지 지식은 전략적 지식(Da), 인지 과제에 대한 지식(Db), 자기 지식(Dc)이 해당된다. 인지과정 차원 중 ‘기억하다’의 하위 유형은 재인하기(1.1), 회상하기(1.2)가 해당되며, ‘이해하다’는 해석하기(2.1), 예증하기(2.2), 분류하기(2.3), 요약하기(2.4), 추론하기(2.5), 비교하기(2.6), 설명하기(2.7)가 해당되며, ‘적용하다’는 집행하기(3.1), 실행하기(3.2)가 해당된다. 또한 ‘분석하다’는 구별하기(4.1), 조직하기(4.2), 귀속하기(4.3)가 해당되며, ‘평가하다’는 점검하기(5.1), 비판하기(5.2)가 해당되며, ‘창안하다’는 생성하기(6.1), 계획하기(6.2), 산출하기(6.3)가 해당된다.

체육과 성취기준 분석원칙은 첫째, 하나의 성취기준

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단문이 아닌 복문으로 진술이 되어 있어서 내용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분리하여 분석(2~5개까지 분리)하였으며, 둘째, 하나의 성취기준 안에 2가지 이상의 지식 차원이나 인지과정 차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성취기준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진술된 경우에는 별개의 성취기준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며, 셋째, 성취기준에서 행동 요소를 진술하는 용어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성취기준 해설 및 지식 차원과 행동 용어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인지과정 기능을 분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분석자 간 일치도

연구를 위해 2명의 분석자가 참여하여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분석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제 1 연구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특수교육과 교수였으며, 제 2 연구자는 8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는 현직 특수교사였다.

제 1 연구자는 분석자 훈련을 위해 각 차원에 대한 성취기준 설명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제 2 연구자는 24개의 조합에 대한 성취기준 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8주간 매주 20분씩 분석자 간 일치도 점검을 하였다(총 2.7시간 정도). 이후 분석자 간 일치도가 100%에 이르렀을 때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분석자료 중 지식 차원 일치도는 97.6%, 인지과정 차원 일치도는 97.8%였으며, 총 분석자 간 일치도는 97.7%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분석

1) 차원에 따른 분류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전체 성취기준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체육과 전체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2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취기준으로 '절차적 지식-

표 3. 체육과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결과
Table 3. Analysis of the Overall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iddle School in the Physical Education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Total (%)
Factual	-	21 (11.4)	12 (6.5)	8 (4.4)	-	2 (1.1)	43 (23.4)
Conceptual	-	21 (11.4)	8 (4.4)	-	-	2 (1.1)	31 (16.9)
Procedural	-	25 (13.6)	49 (26.6)	3 (1.6)	3 (1.6)	-	80 (43.5)
Metacognitive	-	3 (1.6)	16 (8.7)	-	2 (1.1)	9 (4.9)	30 (16.3)
Total (%)	-	70 (38.0)	85 (46.2)	11 (6.0)	5 (2.7)	13 (7.1)	184 (100)

이해하다' 조합이 13.6%, '사실적 지식-이해하다'와 '개념적 지식-이해하다' 조합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24가지 조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9가지 되었다.

표 3에 의하면, 지식 차원에서는 '절차적 지식'이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개념적 지식'이 16.9%, 메타인지 지식'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적용하다'가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해하다'가 38.0%로 많이 나타났다.

2) 성취기준 분류기준 보완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 분류 협의사항은 표 4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와 신교육목표분류학 이론서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협의한 후 분류를 확정하고 분류 근거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서술어가 담고 있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성취기준이 진술하고 있는 인지과정의 의미를 고려한 분류법은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다 [4][14].

2. 교육과정별 분석

1) 공통교육과정

2015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2015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2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취기준은 '절차적 지식-이해하다' 조합으로 16.1%에 해당하였으며 '개념적

지식-이해하다' 조합과 '사실적 지식-이해하다' 조합이 13.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때 전체 24가지 조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0가지로 나타났다.

표 4. 성취기준 분류 협의사항

Table 4. Consultation on Classific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Achievement Standards	Classification	Reason
G e n e r a l	[9P03-04] Participate in territorial competitive sports, respect the opponent, and play fair.	Factual - Applying Referring to the commentary on achievement standards, the commonly known moral standards are judged to be specific facts and classified as 'Factual K(Ab).
	[9P04-05] Learn creative movements as well as basic movements of sports expression activities suitable for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athletic ability.	Metacognitive - Applying It can be classified as 'Procedural K', but it is classified as 'Metacognitive K(Db)' because the process of creating creative movements is more knowledge than understanding
	[9P05-02] The prevention and response method of exercise damage is appli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Procedural - Applying It Can be classified as 'Factual K' or 'Procedural Knowledge (Ab)' because it uses contextual prevention and response methods
B a s i c	[9P01-01] Prevent and correct the wrong posture.	Conceptual - Applying It is classified as Conceptual K (Bb) because it is knowledge of generalizations that know the principle of wrong posture and apply it to life
	[9P04-01] It expresses natural phenomena or objects that you like through movement.	Metacognitive - Creating It was judged as 'Metacognitive K(Dc)' that selects natural phenomena and objects preferred by individuals, and it is classified as 'Creating (6.3)' because it is a creative expression

K=Knowledge

표 5.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 분석 결과
 Table 5. Analysis of the Gener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iddle School in the Physical Education

	Remem bering	Unde rstan ding	Appl ying	Anal yzing	Evalu ating	Creat -ing	Total (%)
Factual	-	21 (13.5)	10 (6.4)	8 (5.1)	-	-	39 (25.0)
Conceptual	-	21 (13.5)	6 (3.8)	-	-	2 (1.3)	29 (18.6)
Procedural	-	25 (16.1)	32 (20.5)	3 (1.9)	3 (1.9)	-	63 (40.4)
Metacognitive	-	3 (1.9)	13 (8.3)	-	2 (1.3)	7 (4.5)	25 (16.0)
Total (%)	-	70 (44.9)	61 (39.1)	11 (7.0)	5 (3.2)	9 (5.8)	156 (100)

표 5에 의하면, 지식 차원에서는 '절차적 지식'이 40.4%로 가장 많았고, '사실적 지식'이 25.0%, '개념적 지식'이 18.6%, '메타인지 지식'이 15.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절차적 지식'은 '[9체02-02] 동작 도전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경기 기능을 운동수행에 적용한다.'처럼 교과외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었고, '사실적 지식'은 '[9체01-01] 건강과 신체활동(신체 자세, 규칙적인 운동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처럼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대한 지식이 해당되었다. '개념적 지식'은 '[9체 03-07] 기록 도전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처럼 원리와 일반화에 대한 지식이 해당되었고, '메타인지 지식'은 '[9체 02-13]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한다'와 같이 전략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었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이해하다'가 44.9%, '적용하다'가 39.1%, 순으로 많았으며, '분석하다'가 7.0%, '창안하다'가 5.8%, '평가하다'가 3.2%,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기억하다'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로, '이해하다'는 '[9체05-06] 안전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들의 사용법을 이해한다.'와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하기'에 해당되는 활동이 많았으며, '적용하다'는 '[9체01-11] 신체적 여가 활동과 운동처방을 위한 전 과정(계획, 실행, 평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한다'와 같이 직접 해보는 '실행하기'에 해당되는 활동이 많았다. '분석하다'는 '[9체02-01] 경기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와 같이 상호간의 관계를 나누는 '구별하기'에 해당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평가하다’는 ‘[9체02-04] 동작 도전 스포츠 활용 중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활동 과제를 통해 도전 정신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같이 준거와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점검하기’에 해당되었고, ‘창안하다’는 ‘[9체03-03]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한다.’와 같이 새로운 패턴 혹은 구조로 재조직하는 ‘계획하기’에 해당되었다.

2) 기본교육과정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 분석 결과
Table 6. Analysis of the Basic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iddle School in the Physical Education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Total (%)
Factual	-	-	2 (7.1)	-	-	2 (7.2)	4 (14.3)
Concept-ual	-	-	2 (7.2)	-	-	-	2 (7.2)
Procedu-ral	-	-	17 (60.7)	-	-	-	17 (60.7)
Metacog-nitive	-	-	3 (10.7)	-	-	2 (7.1)	5 (17.8)
Total (%)	-	-	24 (85.7)	-	-	4 (14.3)	28 (100)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60.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취기준은 ‘메타인지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10.7% 나타났다. 전체 24가지 조합 중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8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지식 차원에서는 ‘절차적 지식’이 60.7%로 가장 많았고, ‘메타인지 지식’이 17.8%, ‘사실적 지식’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절차적 지식은 ‘[9체육02-02] 물속에서 자유형과 평영 동작으로 빠르게 이동한다’처럼 교과와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메타인지 지식’은 ‘[12체육02-04-b] 자신 또는 타인의 던지기 기록을 경신한다’처럼 전략적 지식에 대한 메타지식이 해당되었으며, 사실적 지식은 ‘[9체육04-04] 외국의 민속표현을 특징에 맞게 표현한다’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었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적용하다’가 8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창안하다’는 14.3%로 나타났다. ‘적용하다’는 ‘[9체육03-03] 손으로 공을 목표물에 던져 넣는다’처럼 물체를 제한된 영역 내로 정확하게 보내기 등의 ‘실행하기’ 활동이 많았다. 이는 체육과 성취기준이 특수한 기법의 실행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지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창안하다’는 ‘[9체육04-01] 자연현상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등을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한다’처럼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산출하다’ 활동이 해당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근거하여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중학교 체육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은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가장 많았다. 하위 교육과정 모두 지식 차원에서 ‘절차적 지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지과정 차원에서 공통교육과정은 ‘이해하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적용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른 교육현장 중심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2개의 공통,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결과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수업목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사실적 지식-기억하다’ 조합이 가장 많았던 점과 상이하다[9]. 그 이유로는 선행연구는 대안 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만을 적용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목표이기 때문인 것과 학교급이 초등학교군인 점에서 중학교군보다 수업목표의 난이도가 낮았던 점으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인지적 단계가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학교급에 따른 위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수업목표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차원의 내용 위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성취기준 분류기준의 대표적인 협의 사항은 제시되었으나, 연구과정에서 일부 성취기준의 경우에는

성취기준의 내용이나 행동 진술이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학 틀의 지식 차원의 하위 유형 및 인지과정 차원의 하위 인지과정에 정확히 해당되지 않거나 한정된 서술어 사용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14][1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은 체육과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쉽게 연계성이 나타날 필요가 있으며, 공통교육과정의 경우 복문보다는 단문의 성취기준 제시를 통해 수업목표 설정 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교육과정별로 살펴봤을 때,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적용하다' 차원에 집중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체 24가지 조합 중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8가지나 되었다. 특히 '기억하다', '이해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와 같은 4가지 인지과정 차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도 전무하였다. 이는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에 근거한 성취기준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특정 지식 유형과 인지과정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과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4][9][11][14]. 이 연구에서는 특히 성취기준이 '기억하다'와 같은 인지과정 차원은 전무하였으며, 일부 차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건강관리, 신체수련, 경기수행, 신체표현, 안전생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습득과 인지과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성취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3].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교육과정 체육과 중학교 성취기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 분석과 달리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별 위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과 중학교 수업의 중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위 교육과정 중 공통교육과정의 경우 '기억하다'와 같은 인지과정 차원을 제외하고 비교적 다양하게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이 나타났으며, '메타인지 지식'과 '창안하다'와 같은 고등 지식 및 인지과정 차원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하위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절차적 지식-적용하다' 조합이 60.7%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4개 중 18개 차원이 전무하였다.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계획할 때 다양한 수업목표 설정을 통해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역량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15 Specia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xplanation," Sejong: Author, 2017.
- [2] Ministry of Education, "2015 Specia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Part 1," Sejong: Author, 2022.
- [3] S. Kim, S. Baek, and S. Cha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in National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11, No. 1, pp.47-73, 1998.
- [4] J. I. Choi, and S. H. Paik, "A Comparative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07 & 2009 Revis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with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in US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 35, No. 2, pp.277-288, 2015.
- [5] B. S. Bloom, M. D. Engelhart, E. J. Furst, W. H. Hill, and D. R. Krathwoh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NY: David McKay, 1956.
- [6] L. W. Anderson, D. R. Krathwohl, P. W. Airasian, K. A. Cruikshank, R. E. Mayer, P. R. Pintrich, J. Raths, and M. C. Wittrock,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Y: Longman, 2001.
- [7] D. R. Krathwohl,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Vol. 41, No. 4, pp.212-218, 2002.
- [8] P. W. Airasian, and H. Miranda, "The Role of Assessment in the Revised Taxonomy," *Theory into Practice*, Vol. 41, No. 4, pp.249-254, 2002.
- [9] S. Kim, and B. Park,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of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From Perspectives of Revision of Bloom's Taxonomy,"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 25, No. 1, pp.95-108, 2017.

- [10]S. Do,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of 'Career and Vocation Education' Textbook Revised Basic Curriculum in the Secondary School for Special School in 2011: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5, No. 3, pp.471-492., 2014.
- [11]M. Lee, M. Kim, and B. U. Jeon,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of the Revised Basic Curriculum for Special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2011: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1, pp.237-260, 2015.
- [12]Ministry of Education, "2015 Specia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Part 2," Sejong: Author, 2020.
- [13]Ministry of Education, "2015 Specia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Part 3," Sejong: Author, 2020.
- [14]W. Cho, and S. Kim,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 pp.381-402,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381>
- [15]K. B. Park, "Analysis of Social Studies Achieve Standards through Bloom's Taxonomy,"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7, No. 4, pp.135-152, 2016.